

■ 시비 시조비

배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제의 거리 이른바 프로모네이드 217번지에서 212번지를 통하는 산책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고자 구상한 것입니다.

선발 대상은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서 강동문인협회 회원, (사)한국 통일문인협회 회원, (사)한국시조협회 증견회원 15명과 역사와 사랑이 실린 화답시조가 2편을 엄선하였다. 일방적인 채택은 저작권시비가 있다하여 기부서약서를 최종 내는 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장의 고덕 그라시움이라는 제목의 시는 우리 단지 재건축사에 얽힌 그동안의 애환과 입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준공 기념사와 같은 글로서 단순한 개인 시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삭제하겠습니다.



